

등근산꼬리풀의 포트 재배 방법

연수호1), 이승연2), 이철희3)*

1,3)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대학원생, 교수, 2)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연구사

Pot Cultivation Method of *Veronica rotunda* Nakai

Soo Ho Yeon1), Seung Yeon Lee2) and Cheol Hee Lee3)*

1)Graduate student, and 3)Professor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2)Researcher, 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pyeong 12519, Korea

ABSTRACT

현삼과(Scrophulariaceae)의 등근산꼬리풀(*Veronica rotunda* Nakai)은 흰색의 꽃이 총상화서로 피며, 관상용으로 쓰인다. 또한, 접선골도라 하여, 전초를 약용하고 활혈, 지혈, 청폐열, 화간위에 효능이 있는 자생식물이다. 본 연구는 등근산꼬리풀의 포트 재배방법 확립을 위하여 2018년 5월 15일에 파종하여 생산된 유묘를 7월 16일에 정식하여 10월 15일까지 약 14주 동안 수행하였다. 식재용기 실험은 비닐포트[3치(7×7 cm), 4치(9×8.5 cm)]와 플라스틱 화분[8호(7×7 cm), 10호(9×9 cm), 12호(10.5×10.5 cm)]를 이용하였고, 토양 종류[중화 피트모스:펠라이트(3:1, 4:1), 마사토:중화 피트모스(2:1, 3:1)], 묘의 소질[파종 립수(1, 2, 4, 6립), 파종 용기(162, 200, 288구 트레이)]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조구는 플라스틱 화분 10호에 원예상토를 충전하고 200구 트레이에 4립씩 파종하여 생산된 1셀을 정식하였다. 연구의 결과, 식재용기에 따른 등근산꼬리풀의 생육은 플라스틱 12호 화분에서 가장 양호하였으며, 토양의 양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생육이 증가하였다. 토양 종류별로는 원예상토에서 재배한 처리구에서 양호한 생육을 보였다. 중화 피트모스와 펠라이트 3:1 혼용토의 경우, 원예상토와 전반적인 생육에 큰 차이가 없어 이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트모스의 비율이 높은 4:1 혼용토에서는 비교적 생육이 억제되었으며, 잎이 황화되었다. 마사토와 중화 피트모스의 혼용토는 원예상토에 비해 왜화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측지수, 마디수, 엽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개화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셀당 파종한 종자의 양을 달리하여 생산된 유묘를 정식하여 재배한 결과, 전반적인 생육은 1립 파종구에서 양호하였다. 한편, 파종량이 많을수록 초장, 절간장이 감소하며, 포트당 마디수, 측지수 및 개화율이 증가하여, 본 연구의 목표인 관상적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종용기별 생산된 유묘이식 결과, 초기생육이 왕성할수록 후기생육도 우수하였다. 162구 생산묘 정식구는 다른 처리구보다 전반적으로 생육이 왕성하였으며, 다음으로 200구 순이었다. 파종용기에 따른 묘의 크기는 정식 후의 개화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등근산꼬리풀의 재배는 플라스틱 화분 12호에 원예상토를 충전하여 162구 트레이에 셀당 6립 파종하여 생산된 유묘를 정식하는 것이 분화용 재배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재배에 이용되는 토양의 종류에 따른 비율 및 개화촉진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Keyword : 야생화, 분화식물, 식재용기, 토양종류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ch@cbnu.ac.kr Tel: +82-43-261-2525

**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야생화 산업화를 위한 신 관상식물 (new ornamental crops)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KNA 18-C-23”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